

世界經濟의 新動向과 韓日經濟關係의 展望

高 承 濟*

韓國의 經濟發展

前世界銀行의 總裁이고 지금은 前美大統領「존슨」에 의하여「대륙」主流開發計劃의 特別顧問으로 任命되어 活躍하고 있는 「유진·블랙」씨는 1968年 9月17日 東京의 内外經濟調査會議 年次大會에서 배운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새로운 外交” 라는 演說에서 日本, 韓國, 自由中國의 세 나라를 1960年代에 있어서 가장 보람찬 經濟成長의 성과를 올린 模範國이라고 지적하면서 東南「아시아」諸國에 대하여 “日本이나 臺灣 또는 韓國에 가서 이 나라들이 눈부신 成長率을 達成하기 위하여 採用했던 政策을 研究하고 自國에 되돌아와서 그 政策들을 自己들로서도 模倣하라”고 忠告하고 있다는 사실을 強調한바가 있었다.

「블랙」씨는 그의 經歷 그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世界經濟의 動向 더구나 「아시아」諸國의 經濟成長過程에 관하여서는 놀라운 觀察力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의 言明은 日本, 韓國, 自由中國이 이미 世界的인 標準에 비추어 보아서 가장 높은 經濟成長의 成果를 쌓아 올린 國家群으로서 評價받고 있다는 것이 世界的 常識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自由中國의 工業生産은 1957年以來 해마다 10% 水準의 增加를 거듭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같이 1957年~61年의 韓國經濟는 自由中國만한 높은 成長率을 올릴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海外學界의 學問的關心의 對象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가령 美國의 「캘리포니아」大

學의 經營大學院長이며 1953年~55年에는 「아이젠하워」大統領의 經濟顧問으로 있었던 「제이코비」博士는 「美國의 臺灣援助」라는 著書에서 1961年까지 韓國의 經濟成長이 自由中國에 比하여 뒤떨어진 原因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 項目으로 나누어 列擧하고 있다.

첫째는 1950年의 韓國動亂과 國民經濟體系의 南北間의 分裂이 韓國의 經濟成長에 不利하게 作用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自由中國의 農業氣候는 單位生産高를 世界的으로 높은 水準으로 올릴 수 있을만큼 祝願된 것임에 반하여 韓國의 農業氣候는 그처럼 祝願된 것이 아니라는 원인을 들고 있다. 셋째로 自由中國의 經濟成長은 單一政黨의 支配아래서 促進되었음에 반하여 韓國의 政情은 1961년까지 不安한 것이었다는 원인을 들고, 넷째로는 國民文化와 國民性에 관한것으로서 韓國民은 獨立民族의 기개와 文化創造者라는 自負心 강한 民族이기 때문에 獨立後에도 日本의 産業技術과 文化의 影響을 받아들이는 일을 거부하였음에 반해서 自由中國은 近代化에 必要한 日本의 産業技術과 文化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 寬대한 수용적인 態度를 取하여 왔다는 원인을 들고 있다. 이 네번째의 원인은 美國學者의 지적을 기다릴바다 없이 朴大統領을 비롯하여 韓國의 指導層과 國民이 일찍부터 感得하여온바 있다. 1965年 6月22日에 調印된 國交正常化라는 歷史的 事實을 단행하게 된 原因의 하나로,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對日國交正常化를 韓國의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큰 可能性의 하나로 보고 이 歷史的 事實을 단행하였다는 것이 韓國國民의 信念이었던 것이다.

*經濟學博士
經濟科學會議專門委員

開發途上國交易

1965년의 日本經濟는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 增大를 손잡이로 하여 戰後 비로소 처음으로 國際收支의 黑字基調를 確立한 데로서 記憶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同時에 이해는, 韓國의 對外輸出貿易에 있어 日本이 1884년이래로 보유하여 오던 韓國商品의 最大輸入國이라는 地位를 美國에 물려준 해로서도 記憶하지 않을 수 없다. 國交正常化가 達成되었던 바로 그해에 日本이 韓國商品의 最大輸入國이라는 地位를 美國에 물려준 功인은 무엇이겠는가.

이 問題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1960年代의 後進國 一般의 經濟動向을 간단히 살펴볼 必要가 있는 줄로 믿는다. 1955~65년에 있어서 世界貿易總量은 8億4千3百萬달러에서 16億4千4百萬달러로 95%의 增加를 보였다. 그중에서 先進工業諸國의 貿易總量은 1百11%나 增加하였는데 반하여 開發途上諸國의 그것은 53%밖에 增加하지 않았다. 더구나 世界總輸出에 있어 開發途上諸國의 比率는 그동안 28.2%에서 22.1%로 오히려 減少되었다.

이와같은 사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開發途上國의 輸出貿易이 減退의 過程을 밟지 않을 수 없었던 根本的인 原因은 開發途上諸國의 輸出商品의 8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1次產品의 輸出이 정제되었기 때문이다. 1968年 2月~3月에 걸쳐서 印度의 「뉴·델리」에서 열렸던 第2回 「유엔」貿易開發會議(UNCTAD)에서 開發途上諸國이 1次產品에 대하여 特惠供與의 原則을 樹立할 것을 主張한데 대하여 先進工業諸國側은 冷淡한 態度로 始終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1次產品의 輸出不振이 開發途上諸國의 經濟成長에 그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지를 손쉽게 感得할 수가 있다.

미흡한 貿易自由化

1965년이래 韓國과 日本의 貿易關係를 특징지어 온 貿易逆調의 問題에 관련된 緊張要因도 世界的인 現象으로 알려진 1次產品의 對日輸出不

振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總輸出에 있어 1次產品의 比率는 1963年의 51%에서 1965년에는 37%로 減少하였고 1968년에는 22.7%로 더욱 減少하여 가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1次產品의 對日輸出이 不振一路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日本側에서 家畜을 비롯한 7項目의 農産物에 대하여, 海苔를 비롯한 5項目의 水産物에 대하여, 그리고 蠶絲를 비롯한 8項目의 蠶産物에 대하여 오히려 禁止에 가까운 輸入制限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1次產品의 輸出不振은 貿易面에 있어서 地理的으로 가장 가까운 日本이 美國 以上으로 머나먼 나라라고 韓國國民이 생각하게 된 원인을 이루는 것이다.

상세한 論爭을 기다릴바도 없이 日本이 美國에 대하여 貿易面에서 품고 있는 不滿足感을 韓國은 日本에 대하여 그냥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다. 日本이 美國의 重商主義的인 貿易政策의 是正을 渴望하고 있는 것처럼 韓國도 日本의 重商主義的인 貿易政策의 是正을 渴望하고 있는 것이다. 1968年 6月4日에 美國의 「조지타운」戰略研究所가 發表한 「美·日政治關係에 관한 報告書」는 美日經濟關係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勸告하고 있다. “美國政府는 保護貿易措施에 대한 國會 및 民間의 壓力에 對항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前提하면서 이와 같은 保護貿易措施는 美國이 國際收支改善과 保護를 받는 産業에 利益을 가져오는 이상으로 美·日兩國의 經濟에 損害를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고 警告하고 있다. 그러나 이 報告書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아울러 勸告하고 있다.

그것은 日本의 資本 및 貿易의 自由化가 美國에 比하여 훨씬 뒤떨어져 있는 사실을 指摘하면서 日本이 輸入自由化의 約束을 지키도록 계속하여 壓力을 베풀어야 한다는 勸告이다. 韓國도 日本에 대하여 美國이 日本에 대하여 希望하고 있는 것처럼 日本이 世界를 向하여 約束되었던 輸入自由化를 實踐할 것을 壓力을 베푸는 방법으로 가 아니라 信義的인 共感을 얻는 방법으로 希望하고 있는 것이다.

自由經濟優位實證

앞에서 접한바 있는 印度의 「뉴델리」에서 開發途上諸國들이 1次産品에 對하여 特惠를 供與하여 줄 것을 屢次 要求하여온데 對하여 「프랑스」의 代表가 工業製品의 90%는 經濟問題인데 反하여 農業製品은 90%까지가 政治問題라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프랑스」代表가 이처럼 언명한 背後의 專情은 모르든바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日本, 韓國, 自由中國은 開發途上國의 經濟가 一般的인 沈滯狀態에 빠져있는 1960年代에 있어서 經濟成長의 世界的인 模範國으로서 찬양받고 있는 事實은 크나큰 歷史的인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自由民主主義的인 經濟體制아래 있어서도 中共이나 北傀가 따라올 수 없을 程度로 빠르고 건전한 經濟成長의 實績을 올릴 수 있다는 制度的인 信念을 日本, 韓國, 自由中國의 業的인 世界로 向하여 實證하고 있는 것이다.

過去の 歷史나 地域經濟統合의 原理를 새삼스럽게 고집어낼 必要조차도 없이 1960年代에 있어서 日本과 韓國이 共通的으로 삼아 올린 經濟成長의 業績을 다 같이 생각하여 볼때에 貿易을 둘러싼 利害關係라는 表層아래의 그 어느 깊은 곳에는 반드시 好意의 貯水池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믿어진다.

1957년에 韓國은 3年間에 걸친 動亂에서 입은 産業施設상의 被害를 復舊하였음에도 不拘하고 1961년에 이르기까지는 年平均 5%의 經濟成長 밖에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957년~61년을 停滯期라고 부르는 것도 뜻없는 일은 아닐 듯 하다.

그러나 1963年以來 韓國의 經濟成長率은 年平均 9.4%를 維持하면서 1967년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구나 1968년에는 異例의 大凶作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13.1%라는 높은 成長率을 達成하였던 것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年經濟成長率에 있어 13%를 넘는 나라는 世界에 다만 日本과 韓國이 있을 뿐이다.

底力은 工業生産力

이와같은 高度經濟成長을 가져온 主導力은 工業生産力의 飛躍的 發展에 있는 것이다. 1962年~66년에 있어서 工業生産部門은 年平均 15%의 成長率을 보였던 것이며 1967年과 68년에 있어서도 29.1% 및 37.2%라는 높은 成長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工業生産部門의 飛躍的 發展은 그냥 그대로 韓國의 輸出力의 增進에 反映되었던 것이다. 韓國은 1963年~68년에 있어서 平均 42.9%라는 높은 輸出增加率을 보임으로써 自由中國의 23.6%를 훨씬 능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韓國輸出의 商品構成에 있어 工業製品이 차지하는 比率이 1967년에 69%이고 1968년에는 77.3%라는 事實이 만하고 있는 바와 같이 韓國의 飛躍的인 輸出增大는 工業製品의 輸出增大가 가져온 結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의 輸出增大에 있어 基幹的인 役割을 하고 있는 工業生産部門을 運營 強化하기 爲하여 韓國은 機械類의 輸入에 있어 日本市場에 62.4%를 依存하여 왔으며 工業用原料로서는 化學製品에 있어 63.2%, 織物類에 있어 89.6%, 動·植物性油脂에 있어 68.2%나 日本市場에 依存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統計數字는 韓國이 工業原料의 輸入에 있어 日本市場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는 事實을 말하고 있다. 1968년에 있어서도 韓國은 日本으로부터 5億2千2百38萬4千달리의 商品을 輸入하였는데 機械類를 비롯한 生産施設이 28.3%를 차지하고 나머지 72%는 工業用原資材의 輸入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開發途上諸國을 爲하여 새로이 展開된 이러한 體系로서 「피니싱·터치」(Finishing Touch) 論을 들 수가 있다. 이 理論이 가리키고 있는 要點은 加工度가 높은 工業製品이 原料라는 美名밑에서 開發途上諸國에 輸入되는 한편 開發途上諸國의 工業은 最後의 生産過程만은 完成하는 處地에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生産된 工業製品을 海外市場에 輸出한다 하더라도 極少額의 加工費만을 取得하는 結果가 된다는 것이다. 加工度가 높은

工業原資材를 주로 日本으로부터 輸入하는 처지에 있는 韓國의 工業은 그 製品을 海外市場에 輸出한다 하더라도 正當한 輸出利潤의 大部分은 이미 日本의 原資材의 生産者나 輸出者들에 依하여 奪取되고 말았다는 事實을 「피니싱·터치」論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貿易逆調 1對5

韓國이 現在에 이르러 日本과의 貿易에 있어 1對5라는 貿易逆調을 나타내고 있는 根本原因은 工業用原資材를 日本市場에 크게 依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日本으로부터 輸入하는 工業用原資材를 加工하여 輸出하는 境遇에 韓國으로서는 少額의 加工貨만을 取得하게 된다는 「피니싱·터치」論의 敎理를 다시금 생각할때에 해마다 增大되어가고있는 韓·日貿易關係의 不均衡狀態는 韓國만이 짊어져야 할 負擔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加工도가 높은 原資材를 輸入하여 工業生産을 이룩한다는 工業化方式을 加工도가 낮은 原資材를 處理하는 方式으로 改新한다는 것은 韓國에 賦課된 工業化의 새로운 方式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方式으로 韓國의 工業化의 類型을 改新하기 爲하여서는 産業技術의 革新을 비롯하여 數많은 前提條件이 解決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時間이 걸리는 問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日本으로부터의 輸入方式을 改新하는 일보다 日本에서 輸出增大의 길을 찾아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韓國의 輸出貿易에 있어 日本市場이 차지하는 比率은 1967年의 26.6%에서 1968년에는 21%에로 다시금 減少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을 어떻게 增大하는 方向으로 고쳐나갈 것인가가 韓·日貿易關係를 均衡의인 것으로 고쳐나가는 唯一한 길이라고 믿게되는 것이다.

日本이 1930年代까지 實施하여왔던 輸出增大方式이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韓國이 1963年以來로 推進하여 오고 있는 輸出增大方式도 中小企業을 輸出産業으로 動員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韓國의 總輸出에 있어 中小企業製品이 차지하는 比率이 1963年의 18.6%에서 1967

년에는 31.4%로 增大한 것으로 證明되어 지는 것이다. 한편 工業製品輸出에 있어 中小企業製品이 차지하는 比率을 보면 1967年~68年에 있어 41%에 가까운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韓國中小企業者의 下層部門을 차지하고 있는 保稅加工業者의 輸出增大에 對한 寄與率을 工業製品輸出에 있어 그들이 차지하는 比率로 미루어 본다면 1963年의 18.6%에서 1968년에는 31.4%로 되어가고 있다. 이 事實은 韓國의 保稅加工業者들이 世界에 유례없는 우수한 成長力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不振한 韓國鐵業

日本에 있어서는 2次 大戰前까지 輸出增大에 크게 寄與하여오던 中小企業製品이 現在에 이르러서는 世界市場에 對한 進出力을 喪失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日本의 中小企業이 資本 및 技術面에 있어 弱小하다는 事實을 말하는 現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豊富한 良質의 勞動力의 缺乏이 가져온 結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韓國의 保稅加工業者들은 「어메리카」 「유럽」을 비롯하여 世界의 방방곡곡에 그들의 製品을 輸出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의 中小企業者나 保稅加工業者들이 資本과 技術面에 있어 祝福되었다는 事實을 말하는 現象은 아닌 것이다. 다만 그들이 人間으로서 갖추고 있는 좋은 精神과 着實하게 일하는 習性이 가져온 結果인 것으로 생각된다.

多少 낭만적인 생각인지 모르나 韓國이 갖추고 있는 中小企業家나 保稅加工業者들의 출기찬 成長力에 日本의 資本과 技術이 「플러스」된다면 世界에서 가장 그럴듯한 經濟協力의 「모델」을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先進工業諸國의 輸入制限이 甚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갈만한 힘찬 輸出伸張力을 發揮할 수 있는 結果를 가져올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같은 可能性은 未來를 向하여 꿈꾸는 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韓國의 中小企業家나 保稅加工業者들이 앞으로 쌓아 올린 구체적인 過

去의 實績에서 輸出에 낼수 있는 結論인 것이다.

韓國에서는 中小企業을 2百名以下로 規定한다면 中小企業이 韓國의 輸出에 있어 기여하는 役割은 더욱 높은 比重으로 評價되어야 할것이다. 이 實마져 考慮에 넣고, 다시 생각한다면 韓國이 1963年以來로 喪아올려온 世界에서 가장 높은 輸出增大率은 韓國民의 精神的인 힘의 所産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韓國民으로 하여금 「輸出推進型成長」(Export led Growth Model) 이 가장 所望스러운 經濟成長方式이라고 믿게 된것은 疲困할줄 모르는 朴大統領의 「리더십」이 베풀어준 所産이라고 생각한다.

日本은 世界에서 韓國의 鐵物資源을 가장 많이 開發한 일이 있었고 輸入하여간 나라였다. 그런데 韓國의 鐵業은 最近에 이르러 「다이너스」 成長을 보일만큼 不振한 狀態에 놓였다. 韓國의 總輸出에 있어 鐵產物이 차지하는 比率은 1960年의 18.2%에서 1968년에는 9.2%로 더욱 減少해가고 있다. 이것은 그냥 放任하여 둘 수 없는 問題인 줄로 안다.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世界企業 또는 多目的 企業들은 유럽의 製造工業에 參與하였던 方式에서 벗어나서 鐵產物의 開發에 經營의 焦點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萬若 日本의 資本과 技術이 地下에 잠자고 있는 韓國의 鐵物資源의 開發에 參與한다면 이것 또한 世界의 주목을 받을만한 地域協力の 「모범」을 보여주는 結果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外國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여 自國의 開發效率을 높이는 가장 重要한 前提가 自助精神이라는 것은 많은 學者들이 後進國 開發理論에서 強調같이 強調하고 있는 結論으로 되고 있다. 自助와 開發은 서로 分離할 수 없는 兩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韓國이 過去 몇 年間에 걸쳐서 喪아올린 높은 經濟成長率과 輸出增大率은 두말할 것없이 貴重한 自助精神의 證據物이 될수 있

는 것이다.

利害調整이 큰 課題

2次 大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25年間에 있어서 人類는 經濟問題를 다룸에 있어 過去에 이르는 時代에 比하더라도 더욱 賢明해 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理論的으로나 또는 數字的으로 傍證을 세울 수 있는 問題는 아닌 것이다. 다만 直觀的으로 그와 같이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率直히 말하여 國家와 國家가 經濟的인 關係를 맺음에 있어, 다시 말해 貿易關係를 맺음에 있어서는 人類는 아직도 過去에 거둬하여 오던 愚昧에서 完全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斷言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 1960年代를 맞이함에 있어 「開發의 10年」이라는 巨大한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世界各國은 國內開發에 있어서는 놀라운 成果를 올리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다만 貿易面에 나타난 挫折 때문에 滿足한만한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世界經濟의 動向을 特徵지을 수 있는 實情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네덜란드」의 有名한 經濟學者인 「팀버-젠」 教授가 한말을 이지터에서 記憶하여 보고 싶다. 그것은 나라와 나라사이에 이루어져야할 가장 所望스러운 經濟協力の 姿勢는 나라와 나라사이에 가르 놓여 있는 經濟的利害關係의 對立을 調整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世界는 必야호로 國際貿易상의 利害對立을 克服하는 길을 찾아내는 課題를 앞에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고민을 解消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實踐에 옮기는 나라가 世界에서 가장 높은 知性을 자랑할 수 있는 民族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와같은 榮光이 韓·日兩國을 爲하여 빛나게 될 것을 마음속 깊이 希望한다.

<53 P에서 繼續>

容量은 낮지만 絶緣性이 매우 좋은 纖維라이닝이 점차로 많이 사용되어 간다. 흥미로운 發展의 하나는 세라믹 纖維로서 종이, 담요, 천 등과 마찬가지로 包裝의 絶緣材料로 使用할 수 있다.

耐火物의 이러한 여러가지 發展은 品質의 級과 特性의 範圍를 多樣化하게 만들었다. 爐의 操業條件만 결정된다면 耐火物 製造業體는 어느 때 보다는도 自信있게 適合한 耐火物을 爐設計者나 使用者에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